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19. 4. 21.(일) 10:00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		
상하수도본부	보도자료 PRESS RELEASE	상수도부장	현공언	750-7800
		상수도정책시설과장	고범녕	750-781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“제주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”

- 먹는 물 수질 기준 100% 적합 ... 수돗물 수질 안전성 재확인 -

- 제주도가 공급하는 수돗물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 먹는물 수질기준 61개 항목에서 100%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.
-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(본부장 고윤권)는 지난 3월 수돗물평가위원회(위원장 정준범)와 합동으로, 도내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20개소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했다.
-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수질검사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해, 도내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20개소(정수장 16개소, 마을상수도 4개소)의 수도꼭지 수돗물을 채수해 분석했다.
- 특히, 검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가(환경부)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인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먹는물 수질기준 61개 항목 중 현장측정을 하는 잔류염소를 제외한 60개 항목에 대해 의뢰했다.

- 검사결과, 60개 모든 항목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으며, 중금속이나 농약과 같은 인체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.
- 상하수도본부는 수돗물 검사결과를 도 및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각 읍·면·동사무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
- 상하수도본부는 앞으로 도내 다양한 채수 지점을 선정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.
- 또한, 상수도에 대한 수질 정기검사 항목을 61개(법정) 항목에서 140개 항목으로 확대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,
 - ‘찾아가는 수질검사실’, ‘수돗물 안심확인제’ 등을 통해 수돗물의 음용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- 영산강유역환경청 제1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팀 관계자는 “2019년 4월 현재 도내 상수원수, 정수장, 마을상수도, 일반지하수 등 1,114개소에 대해 1,564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, 모든 항목이 법정기준 이하로 조사됐다” 며,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것을 당부했다.

□ 사진자료



▲ 수돗물평가위원회 시료 채수(2019.3.19.)



▲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심의(2019.4.15.)